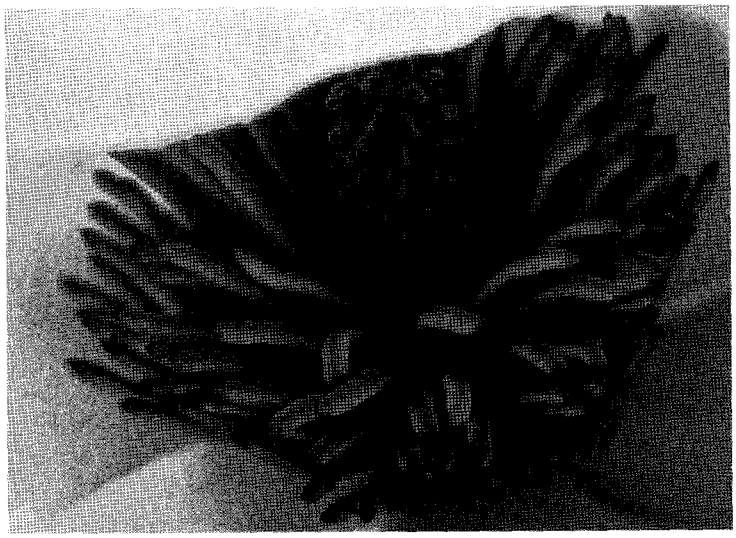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목련(*Magnolia*) 속

-소개 및 번식방법-

실장 **김 종 근**
천리포수목원 자원식물연구소
(Homepage: www.plusgarden.com,
E-mail: iloveplant@hotmail.com)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산기슭에서 자생하는 목련(*Magnolia kobus*)과 전국 각처의 깊은 산 중턱 골짜기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함박꽃나무(*M. sieboldii*)가 있는데,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목련들은 이들 목련과 함박꽃나무를 비롯하여 백목련(*M. denudata*), 자목련(*M. liliiflora*), 별목련(*M. stellata*), 일본목련(일목련; *M. obovata*), 태산목(*M. grandiflora*)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자목련이라고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는 실제 자목련(*M. liliiflora*)이 아닌 *M.* x *soulangeana*(솔란지아나 목련; 백목련과 자목련의 교잡종) 종류인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명한 식물도감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목련은 기껏해야 위에서 잠시 언급한 정도의 종류가 있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만 자색을 띄면 무조건 자목련이라고 부르고 있는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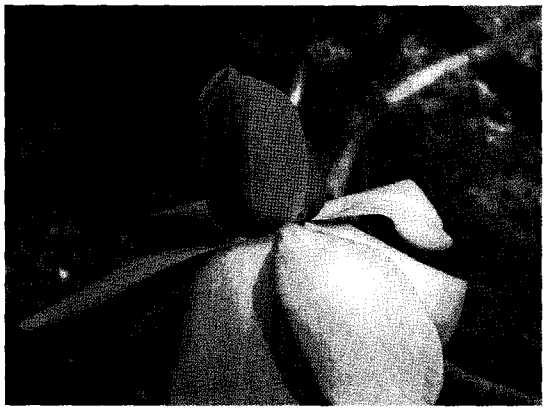


▲ *Magnolia sargentiana* var. *robusta*

한편 목련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는 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화사한 아교목이기도 하지만, 백악기 제 3기(2백만 년 - 6천 5백만 년 전)의 지층화석에서 발견될 정도로 가장 원시적인 현화식물 중 하나인 목련은 식물계통학적인 측면에서 고대 식물사 연구에 있어서 학술적인 중요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련은 관상적 가치가 높아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품종개발로 인해

▲ *Magnolia* 'Elizabeth'



▲ *Magnolia campbellii* 'Landic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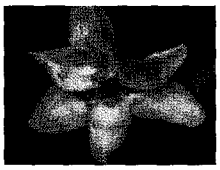
현재 세계목련학회(Magnolia Society)에 등록된 품종만도 약 1,000여 종류가 넘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목련 수집 및 품종개발은 천리포수목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천리포수목원에는 약 410여 종류(재배품종 포함)에 달하는 다양한 목련들이 자라고 있다.

마그놀리아(*Magnolia*)라는 이름은 프랑스 남부 몽펠리어(Montpellier)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였던 피에르 마그놀(Pierre Magnol)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목련과(Magnoliaceae)에는 *Magnolia*, *Manglietia*, *Kmeria*, *Pachylarnax*, *Michelia*, *Elmerrillia*, *Liriodendron* 등이 있는데 이중 *Magnolia* 속이 가장 크다. 목련의 분포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북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남부까지의 일대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의 동아시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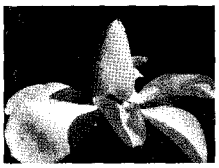
목련은 관상가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가치가 있는데, 백목련과 목련의 꽃잎을 이용하여 피클을 만들기도 하고, 밥에 향기를 좋게 하는 재료로도 쓰인다. 또한, 태산목의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원기회복 및 흥분제로, 자목련의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두통과 코질환에, *Magnolia officinalis*의 꽃과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원기회복과 부인병에, *Magnolia virginiana*의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지혈제 및 해열제로 쓰기도 한다.

목련(*Magnolias*)의 겨울눈은 유난히도 큰데, 특히 꽃눈은 보송보송한 털이 감싸고 있다. 턱잎은 변하여 1장의 비늘잎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잎자루가 있는 홑잎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턱잎은 막질로 잎자루에 붙고 어린잎을 싸며, 그 자국은 가지를 한 바퀴 돈다. 꽃은 양성화로 대부분 대형이며, 1송이씩 가지 끝에 붙는다. 꽃의 형태는 접시형(Saucer Shape), 컵형(Cup Shape), 컵과 접시형(Cup and Saucer Shape), 포도주잔형(Goblet Shape), 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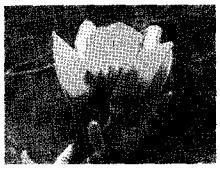


〈그림 1〉 접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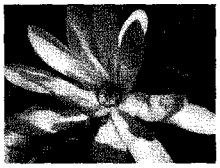
〈그림 2〉 컵형



〈그림 3〉 컵과접시형



〈그림 4〉 포도주잔형



〈그림 5〉 별형

(Star Shape) 등 5가지로 크게 나뉘어 진다. 수술은 아주 많고 암술대를 감싸고 있으며, 꽃밥은 선형이고 안으로 향한다. 열매는 골돌 모양이며 배면이 터진다.

일부 상록성 목련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육이 가능하지만, 가끔씩 일찍 꽃이 피는 목련들은 늦서리에 꽃봉오리가 피해를 받기도 한다. 주로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는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강한 바람에 노출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약간 그늘진 곳 또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

목련 번식에 있어서 크게 씨앗, 삽목, 취목, 눈접, 조직배양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씨앗으로 번식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재배종을 선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번식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뿌리의 형성이 왕성하여 잘 자라며, 대목의 용도로도 가능하다. 특히, 자연교배가 가능한 곳에서 채집한 씨앗의 경우 다양한 유전자원의 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들도 있는데, 씨앗으로 발아된 목련의 꽃을 보려면 길게는 10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씨앗의 채집 시기는 열매가 약간 벌어지려고 할 때가 적당하다. 너무 일찍 채집하면 종자가 여물지 않거나 정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너무 벌어지면 종자가 말라져서 딱딱해 지거나 땅에 떨어져 채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단 종자를 채집한 후에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종자가 벌어져서 주황색의 씨앗들이 보이게 된다. 그 정도의 시기가 되면 열매 안에 있는 종자들을 꺼내어 약간 미지근한 물에 몇 일간 담가둔다. 씨앗에 따라 재정선의 시기가 약간씩은 다른데, 과육이 물러졌을 때, 비벼서 까만 종자를 꺼내면 된다.

정선된 씨앗은 약간 습기가 있는 피트 또는 피트+모래 또는 질석과 함께 혼합하여 비닐 팩에

▲ *Magnolia* 'Sweet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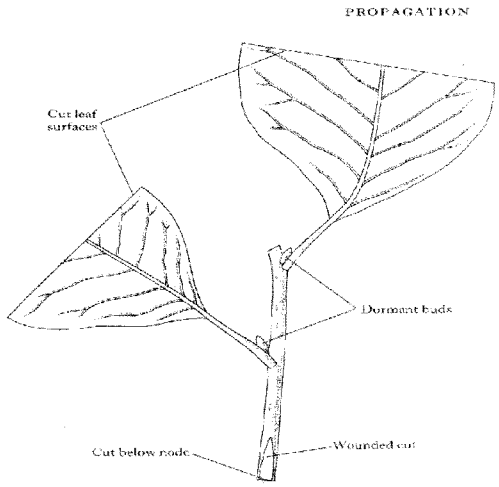
넣고 약 1℃에서 3℃의 온도에서 2개월 동안 보관한다. 이때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앗은 가을철 또는 봄에 씨앗용 베드 또는 번식상자에 뿌릴 수 있는데 온도는 21℃를 유지하면 약 한달 후에 발아가 된다. 발아가 된 후 어느 정도 목질화가 진행되면 각각의 묘목들을 포트에 옮겨 심으면 된다.

삽목으로 번식할 때의 장점은 부모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며, 씨앗번식보다 일찍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도 있는데 씨앗번식에 비해 비용이 좀 더 소요되며, 국제 교류에 있어서 약간 까다롭다는 점이다. 아무튼 목련의 삽목에 있어서 두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녹지삽(Softwood Cutting)과 반숙지삽(Semi-ripe Cutting)이다. 낙엽성 목련의 경우에는 녹지삽이, 태산목 등과 같은 상록성 목련의 경우에는 반

숙지삽이 보다 효과적이다.

삽수는 건강한 가지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다. 채취한 삽수는 전년지와 당년지의 마디부분을 날카롭게 잘라주는 것이 좋으며, 눈은 약 2개정도를 남기고 윗부분을 잘라주고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도 절반 정도 잘라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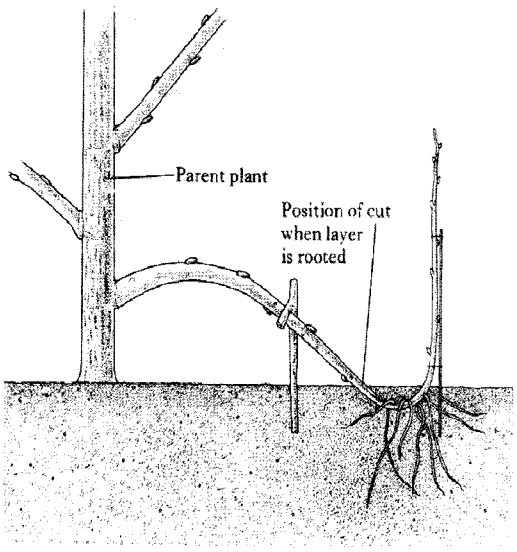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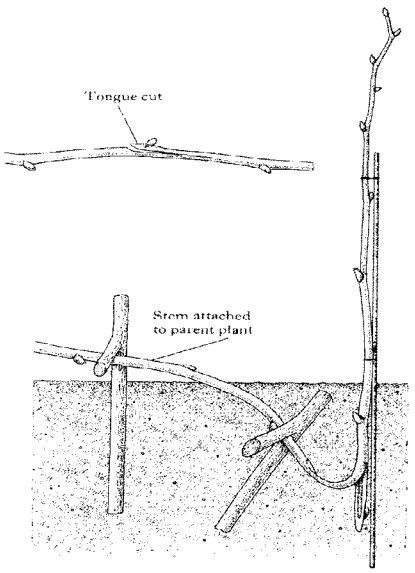
〈그림 6〉 녹지삽을 위한 삽수 손질 방법

취목은 소수의 식물이 필요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초보자의 경우에도 성공률이 아주 높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번식하고자 하는 목련의 제일 아래에 있는 가지를 지상부로 약간 구부러트려 눌러주고 땅에 접하는 전년지 부분에 날카롭게 흠집을 내준 다음 끝의 가지를 수직으로 고정시켜주면 된다. 보통 봄철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접하는 부분의 땅을 약간 높여줄 수도 있다. 이때, 이 부위의 상토는 피트 또는 고운 모래를 섞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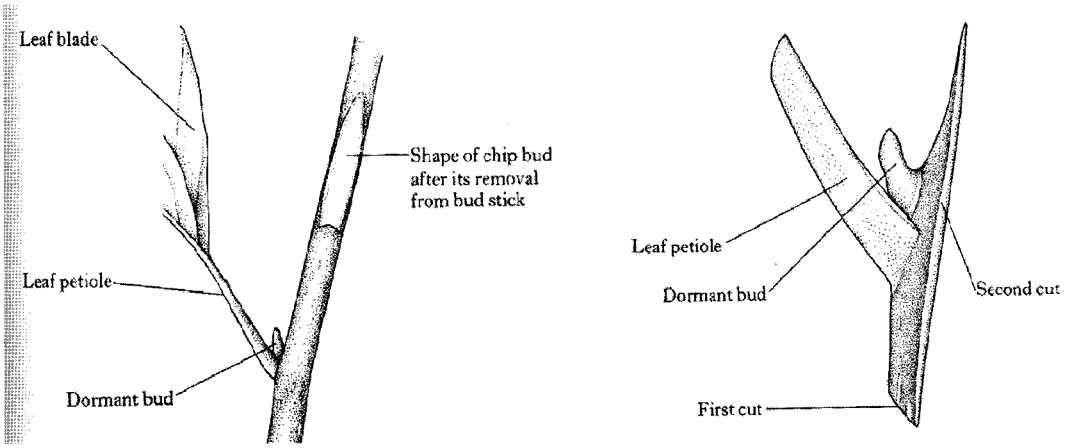
약 12개월이 지나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되어 있는데, 모수에서부터 완전히 잘라내어 식재를 해주면 된다.

눈접과 접목의 방법은 다른 번식방법들과는 달리 일반 초심자들이 다루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들이 많다. 목련 종류에 따라서 대목을 선정하는 것, 대목확보 및 생산, 접수 준비, 접목 기술, 관리 등 많은 부분에 걸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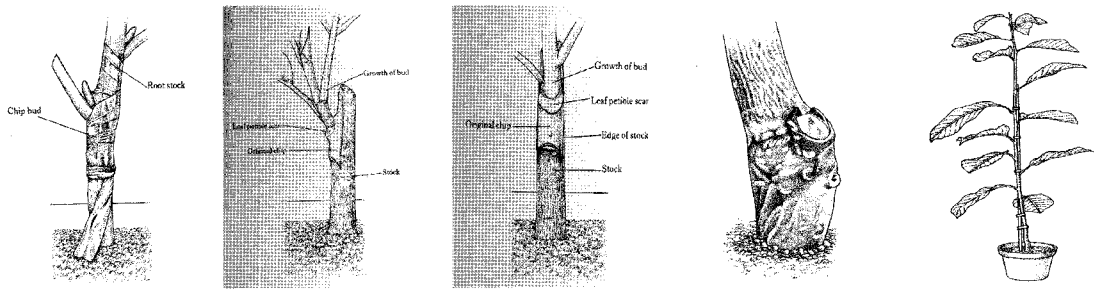




〈그림 7〉 취목의 방법



〈그림 8〉 눈접을 위한 눈 채취 방법



눈접방법

다. 따라서 위의 그림을 참고로 간단하게 이해한 후에 좀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서적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이 목련의 전반적인 소개 및 번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마치고 다음 편에는 재배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David Hunt(1998) Magnolias and their allies. International Dendrology Society and The Magnolia Society.

Graham Rankin(1999) Magnolia -A Hamlyn Care Manual-

Jim Gardiner(2000) Magnolias -A Gardener's Guide-. Timber Press.

Liberty H. Bailey(1976) Hortus Third. Macmillan.

Neil G. Treseder(1978) Magnolias. Faber.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